



## 우리는 얼마나 C·O·R·E 할까?

— 혁신 아이디어에 대하여 —



〈산업심의관실 사무관 권혜린〉

“서로 알고 지내기 운동을 합시다”  
“직원능력 발전을 위한 지원제도를 실시합시다”  
“부처별 게시판들을 만들면 어떨까요?”

지난 4월부터 혁신아이디어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들이다. 올려진 아이디어들을 정리해보니, 제도·문화 개선, 정보제공 등 다양한 방면의 400여건이 아이디어들이 개시되어 있었다.

이안 맥미란 교수는(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는 혁신은 아이디어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성공적인 혁신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꽤나 많은 혁신자산을 쌓은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디어의 개시 건수와 내용들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지난해 한참 혁신아이디어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참신한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직원들의 대화 주제가 되기도 하고, 온라인 상에서의 활발한 의견교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최근 들어, 우리 게시판의 빈도와 강도가 약해져가는 것은 왜일까? 우리의 혁신아이디어 게시판에 부족함 그 2%는 어떤 것일까?

인시아드\*의 마나레이 교수는 개인의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CORE, 즉 Curiosity(호기심), Openness(개방성), Risk Tolerance(위험 감수력), Energy(에너지)를 제시했다. 각 요소의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창의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 인시아드는 유럽 최고의 경영대학원으로 영국의 런던 비즈니스스쿨(LBS), 스위스의 국제경영 개발원(IMD)과 함께 유럽의 3대 경영학 교육기관

일견 사소해 보이는 아이디어 개시 하나에도, 그런 요소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전례를 답습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내고 더군다나 그것을 실제화하고 구체화하는 것은 많은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인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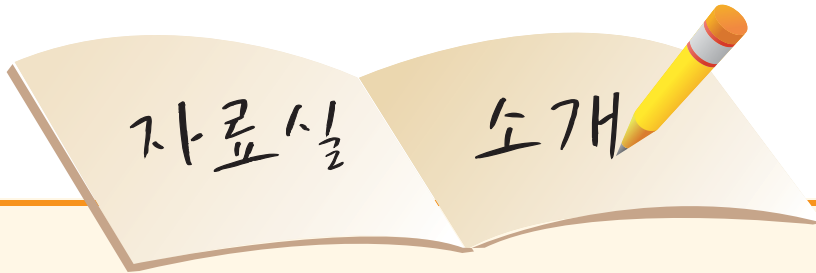
또한 그는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 또한 중요하다고 했는데, “집단지 사고, 관료적 분위기, 시간적 압박” 등을 경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부분이 공공조직에 취약한 것들이고, 우리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기가 그만큼 어렵단 말도 될 것이다.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과 프로세스가 제공돼야 하고, 리더십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매핑 등 창의성 향상과정을 정제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성공한 혁신기업으로 꼽히는 용진코웨이처럼 주기적으로 구성원의 아이디어 개시를 권장하는 방법도 일레가 될 것이다. 게시판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해서 인센티브를 체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블루오션전략의 공동창시로 일약 국제경영학계의 스타로 떠오른 김위찬 교수는 한 강연에서 자신은 그저 보통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학시절 영어도 안되고 머리로 보통 수준으로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공비결로 ‘낮은 포복’을 들었다. 너무나 평범했기에 열심히 낮은 포복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기어가는 것 밖에 도리가 없었다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창의력은 특별한 사람이나 천재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도 C·O·R·E 하면서 천천히 낮은 포복을 시작해 보면 어떨까? 새 미래



➡ 2005년을 보내며 올유년 해맞이와 더불어 이제 12개월을 맞은 자료실의 풍채는 겸손한 수습인의 모습입니다. 인류의 국가 경쟁력 실현을 위상으로 하는 정부와 정부인들은 엄청난 속도의 사회변화 가시화에 맞추어 혁신과 변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에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료 활용의 기제에 그 역할을 안고 움을 틔웠습니다.

우리 자료실은 부내 직원들의 정책 결정과 여가 선용을 돕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를 수집, 정리, 열람 대출 및 관리 등의 업무가 이루지고 있습니다.

2004년도 11월에 개관(정부중앙청사 513호)된 자료실은 2005년도 1월에 관리운영 요원이 배치되면서 국무조정실 및 산하 연구기관 연구물, 정부간행물 및 중요문서를 수증 받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자료 검색을 통한 신간도서의 구입으로 자료실 양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왔습니다. 2005년 8월 전산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자료의 개인 도서검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실내 도서는 교양 단행도서 1400여권과 정부간행 열람물 1000여권이 구비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료실의 강화된 역량으로 볼 수 있는 '국회도서관 도서검색시스템'과 '연합뉴스리더'를 들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국회도서관 협약 체결기관으로, 특정분야의 과제 연구를 위한 국 내외 학위논문 및 학회 및 연구기관에서 발행된 모든 출판물을 원문출력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리더'를 통하여 뉴스통신 진흥법에 의거한 연합통신 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뉴스상황일정, 뉴스 뒤 뉴스, 각계 인물 및 기업정보, 문화정보, 기업공시에서 환율, 날씨에 이르기까지 뉴스 팩트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자료실의 숨은 역량으로 기증도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기부터 현재까지 각 부의 성의 모음으로 마련된 신간기증도서와 개개인의 뜻과 마음이 담긴 기증도서(2005.11현재 230여권)는 자료실 이용자들에게 큰 유익함으로 기증분들께 답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료실의 현안은 정부자료의 질적 관리와 제공을 위하여 전문화된 정보 지식 체계를 갖추는데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자료실의 내실과 발전은 실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이 그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다 성의있는 자료관리를 통한 창의적인 지식기반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 나에게 찾아온 백제의 미소



〈환경노동심의관실 사무관 정래평〉

옛말에 배우고 익히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다. 이번 문화재 현장체험은 나에게 이 말의 의미와 기쁨을 충분히 주고도 남은 길고도 짧은 여정이었다.

비가 올거라는 일기예보를 걱정하며 택시타고 달려간 한국의 집에서 유홍준 문화재청장님의 문화유산을 보는 눈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전통 비빔밥으로 든든히 배를 채운 후 출발한 체험일정은 뽐뽐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값진 경험을 주었다.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보았던 처음 만난 서산마애불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우리 백제 조상님의 걸작중의 걸작이었다. 비록 훼손을 막기 위해 집이 둘러쳐지고 전등으로 햇빛을 대신하여 보았지만 빛의 각도에 따라 서서히 입꼬리가 올라가며 피어지는 미소는 돌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을 잊게하는 순간이었다.

이번 여행에서 수덕사에서 템플스테이는 우리 도시 직장인들이 경험하기 힘든 색다른 경험이었다. 새벽 3시에 기상하여 드리는 아침예불, 발우공양을 통한 스님들의 식사방법 체험은 산사의 경건함과 음식의 귀중함을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다.





전날 개심사 대웅전에 이어 수덕사 대웅전에서 우리 백제 조상들이 지은 건축예술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으로 시작된 이틀날의 일정은 한국고건축박물관에 와서는 확실히 눈이 뜨이는 순간이 되었다. 그동안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안내판에서만 보아왔던 공포, 주심포계, 다포계, 맞배지붕, 팔작지붕 등등... 이제는 모르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풍월을 읊을 수 있다는 자부심이 생기게 하는 박물관이었다. 우리나라 생존 고건축분야 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3인중 한 분인 전홍수 선생이 사재 백여억원을 들여 지은 박물관은 감탄과 존경을 지나 공무원인 나로서는 국가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죄스러운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외암마을

이어서 충의사와 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농촌운동과 독립을 위해 한 몸을 던진 윤봉길의사의 정신을 느끼고, 추사고택에서는 추사의 증조모인 화순옹주의 사랑과 딸을 잃은 영조의 마음을 읽고, 아산 외암민속마을에서 조상대대로 살아온 고택과 생활방식을 지켜오는 자부심을 느끼자 어느덧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다.



서산미애불

민속마을 입구에서 유명하다는 파전과 도토리묵에 탁배기 한 잔을 들이기자 모든 피곤함이 털어져 나가고, 차에 오르자 말 못할 뿌듯함이 이들이 너무 짧다는 아쉬움과 함께 가득차 오른다. 동시에 이 여정을 다시 한 번 같이 하고픈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오른다. 다음번엔 천천히 즐겨야지... 탁배기 한 잔 기운에 스르르 눈이 감기며 마애불의 미소가 지어진다.

끝으로 이번 체험여행 내내 곁에서 열정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시고자 애쓰시며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해주신 문영빈 문화재전문위원님, 항상 웃는 얼굴로 같이 한 정한나 선생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이러한 체험여행이 백제, 신라, 고구려, 고려, 조선 등으로 계속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같이 함께하는 국무조경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새미래



# 국무총리실 볼링회



〈정책상황실장 신정수〉

안녕하세요

“새미래”를 통해 국무총리실 직원 여러분들과 소중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무총리실 볼링동호회는 볼링을 좋아하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사람들이 볼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처럼 원만한 교분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동호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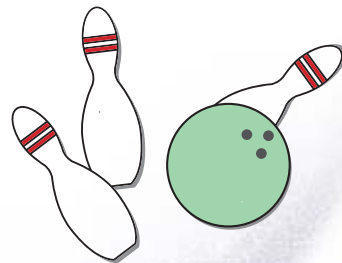
1996년 발족한 이래 현재 30여명의 동호인들이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 친선대회, 자체 동호인대회 등을 통하여 견실한 동호인 단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왔으며 내년이면 10돌을 맞이하게 되어 더욱 큰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에 1회씩, 수시로는 1~2회 모임을 개최하여 동호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져 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업무협조가 훨씬 더 원활해지는 소득도 거두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볼링의 매력은 우리안에 내재된 파괴본능을 발산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자 오락인 볼링을 통하여 동호인들은 국무총리실 화합과 친목의 선봉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 다잡해 봅니다.

공처럼 원만하게!  
판처럼 희생하며!

이 모토를 가지고 마음을 원만하게 다듬고  
희생과 양보를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호회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볼링동호회 회장 신정수(정책상황실장)  
총무 이희은(총괄심의관실 혁신팀) 새미래



# 깊어가는 가을을 良書와 함께.....

※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와 독서를 통한 지식함양을 강조하시는 박종구 경제조정관님의 도서목록을 실습니다.

## 역 사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1	영웅의 역사 10권	진순신 外
2	도구가와 이에야스 인간경영	도몬 후유지
3	조선당쟁사 2권	이성무
4	태조 왕건	김갑동
5	손에 잡히는 서양사 이야기 2권	진원숙
6	정조대왕의 꿈	유봉학
7	다르게 읽는 삼국지이야기	유봉학
8	오다노부나가 카리스마경영	도몬 후유지
9	강희제	조나단 스펜서
10	옹정제	미야자키 이치사다
11	슬픈궁예	이재범
12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이덕일
13	모택동 비록 2권	산케이신문
14	난세의 파천왕 오다 노부나가	이케마야 쇼이치로
15	조조	이재하
16	현대중국을 찾아서 2권	조나단 스펜서
17	일본근현대사	W.비즐리
18	이등방문	나카무라 키쿠오
19	중국문화 답사기	위치우위
20	시와 사진으로 보는 중국기행	진순신
21	노부나가 히데요시 이에야스의 천하제패경영	구스도 요시아키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22	이야기 한국 근현대사	이현희
23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박영규
24	사화로 보는 조선역사	이덕일
25	조선왕조사 2권	이성무
26	조선왕조실록 어떤책인가	이성무
27	영조와 정조의 나라	박광용
28	몽골 세계제국	스기야마 마사아키
29	제왕학	니와 순메이
30	제왕학	야마모토 사치헤이
31	중국기인열 전	진순신
32	중국영웅열 전	진순신
33	불멸의 지도자 등소평	등용
34	양반나라 조선나라	박홍갑
35	허드슨 강변에서 중국사를 이야기하다	레이 황
36	새로운 황제들	해리스 솔즈베리
37	중국문화유산 기행 3권	허명환
38	사도세자의 고백	이덕일
39	위대한 제국 진시황가의 CEO들	전문덕
40	위대한 폭군 진시황 평전	천징
41	배신자의 중국사	이나미 리츠코
42	나의아버지 모택동 2권	리민
43	음모와 집착의 역사	클린 에반스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44	세종대왕과 그의 인재들	박영규
45	개원의 치세	짜오리엔민
46	성공한 왕 실패한 왕	신봉승
47	다시보는 조선왕조 왕비열전	임중웅
48	일본을 이끌어온 12인물	사카이야 다이치
49	정치가 정조	박현모
50	일본 전국을 통일한 3인 영웅전	이케나미 쇼타로
51	고려 무인 이야기	이승한
52	남명 소식	박병련 외
53	강좌중국사 7권	서울대 동양사연구실 편
54	역사의 혼 사마천	천통성
55	한 · 중 · 일의 역사와 미래를 말한다	김용운 · 진순신
56	중국, 그 거대한 행보	레이 황
57	정관정요에서 배우는 난세를 이기는 지혜	양판
58	모택동과 중국을 이야기하다	이중
59	史傳 이토 히로부미	미요시 도오루
60	육일 승천하는 중국의 힘. '자치통감'에 있다	권중달
61	고별혁명	리쩌허우 외
62	역사론	에릭 홉스봄
63	원세개	허우이제
64	미야모토 무사시	시바 료타로
65	사건과 에피소드로 보는 도쿠가와 3대	오와다 데쓰오
66	박한제교수의 중국역사기행 3권	박한제
67	중체서용의 경세가 중국본	총사오룽
68	남자의 후반생	모리야 히로시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69	역사에서 배우는 24가지 성공학	도몬 후유지
70	모략 3권	차이 위치우 외
71	비단버선은 흙먼지 속에 뒹굴고	후리요시 미스이
72	나는 이제 오랑캐의 옷을 입었소	다미야 이타루
73	지전 4권	령청진 편서
74	삼국지 100년 전쟁	세토 타츠야
75	난세를 평정하는 중국통치학	리쥔우
76	주원장전	오함
77	무질서의 지배자 마오쩌둥	조너던 스펜서
78	세종, 그가 바로 조선이다	이한우
79	광해군	한명기
80	우에스키 요잔의 인간경영	도몬 후유지
81	카리스마 리더 조조	나채훈
82	정관정요	오금
83	인간 사마천	하야시다 신노스케
84	동주 열국지 12권	김구용
85	카이사르의 죽음	마이클 파렌티
86	조선의 뒷골목 풍경	강명관
87	사기열전 2권	사마천
88	역사의 비밀을 찾아서	한스 크리스티안 후프
89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2권	이덕일
90	세치허가 백만군사보다 강하다	리이위
91	화전	장후수
92	송미령 평전	진정일
93	중국사의 슈퍼 히로인들	이나미 리초코
94	중국 3천년의 인간력	모리야 히로시
95	역사의 교차로에서	김달수 · 진순신 · 시바료타로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96	조조의 변경	사마열인
97	반역의 책	조너선 스펜서
98	황제의 길	모리야 히로시
99	대청제국	마스이 초네오
100	자유인 사마천과 사기의 세계	미야자키 이치사다
101	중국사 최대의 미스터리 진시황제	쓰루마 가즈유키
102	선비의 배반	박성순
103	유목민 이야기	김종래
104	알렉산더	프랑수아 슈아르
105	그림과 함께 읽는 로마제국 쇠망사	에드워드 기번
106	5000년 중국을 이끌어온 50인의 모략가	차이위치우
107	강희	동예진
108	옹정	동예진
109	건륭	동예진
110	영웅 만들기	박리향 외
111	권력	회원위엔
112	청일전쟁	진순신
113	만얼굴의 중국사 5권	백양
114	로마제국 쇠망사	가나모리 시게나리
115	현대 일본의 역사	앤드루고든
116	중앙 유라시아의 역사	고마츠 히사오 외
117	이탈리아에서 역사와 이야기는 같은 말이다	후리사와 미치오
118	책략	회원위엔
119	성공한 개혁 실패한 개혁	이덕일
120	조선왕 독살사건	이덕일
121	왕안석, 황하를 거스른 개혁가	미우라 쿠니오
122	비단길에 만난 세계사	정은주 외

## 사 회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1	거대한 체스판	조지프 브래진스키
2	세계의 운명을 바꾼 1940년 5월 런던의 5일	존 루카치
3	한국호의 침몰	지만원
4	아! 박정희	김정렴
5	위대한 대통령은 무엇이 다른가	프레드 그린슈타인
6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회	송의달
7	일본의 종말	다케우지 야스오
8	20세기를 움직인 지도자들	리처드 닉슨
9	왜 일본은 몰락하였는가	모리시아 미치오
10	일류국가의 길	리관유
11	차이나 쇼크	동예진매일경제신문사
12	미국은 아니다	선한승
13	치명적인 日本	알렉스 커
14	위기의 한국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조성관
15	임자 자네가 사령관 아닌가	김용환
16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 8권	조갑제
17	힐러리의 선택	게일 쉬이
18	중국권력핵심	가미무라 고지
19	이병철 회장을 추모한다	박세록 외
20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그레고리 헨더슨
21	장쩌민	브루스 질리
22	한국 정부개혁 10대 과제	신강순
23	정부혁신의 길	데이빗 오스본·테드 게블러
24	높은 성과를 내는 정부 만들기	마크 포포비치 외
25	성공하는 대통령의 조건	헤리티지재단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26	Bush at War	Bob Woodward
27	Regand's War	Peter Schweiser
28	드굴명전	필리프 리트
29	미군VS유럽 갈등에 관한 보고서	로버트 케이건
30	CEO 경영전략	도나미 마모루
31	빌리 브란트	그레고리 설겐
32	후진타오	양중메이
33	CEO 히틀러와 처칠 리더십의 비밀	앤드류 로버츠
34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	토마스 프리드먼
35	The Great Unraveling	Paul Krugman
36	백악관 상황실	마이클 본
37	롬멜	마우리체 레이
38	티토	재스퍼 라들리
39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송호근
40	1인자를 만든 참모들	이철희
41	경도와 태도	토마스 프리드먼
42	Plan of Attack	Bob Woodward
43	우리도 좋은 대통령을 갖고 싶다	주돈식
44	헌법의 풍경	김두식
45	정청홍	중하이런
46	이공계 살리기	마이니치 신문
47	20세기 러시아 현대사	존 M. 톰슨
48	새뮤얼 헌팅턴의 미국	새뮤얼 헌팅턴
49	악마의 눈물, 석유의 역사	권터 바루디오
50	아메리카 정치지도	소노다 요시아키
51	덩샤오핑 평전	벤저민
52	10년후 한국	공병호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53	대륙을 질주하는 검은말 후진타오	런즈추 · 원쓰용
54	중국이 미국된다	니콜라스 크라스토프
55	국가전략의 대전환	류상영 외
56	뉴턴에서 조지오웰까지	윌리엄 랭어
57	박정희의 마지막 하루	조갑제
58	화려한 약속 우울한 성과	밀턴 프리드먼
59	중국을 변화시킨 거인 장쩌민	로버트 쿤
60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실리아 샌디스 외
61	한국과 일본국	권오기, 요시부미
62	중국 권력 대해부	윤덕노
63	저우언라이 평전	리핑
64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 흥망사	이창위
65	한국 번영의 길	공병호

## 인 문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1	풍운 3권	유현종
2	앙드레 말로	장프랑수아 리오타르
3	아망페자 6권	이자와 모토히코
4	상도 5권	최인호
5	몽골의 초원	시바 료타로
6	불씨 2권	도몬 후유지
7	나폴레옹 5권	막스 갈로
8	강희대제 12권	이월하
9	화인열전 2권	유홍준
10	적을 경영하라	도몬 후유지
11	소호에서 만나는 현대미술의 거장들	강은영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12	우리미술 100년	오광수 · 서성록
13	베이징 이야기	린위탕
14	사카모토 로마 3권	야마오카 소하치
15	완당평전 2권	유홍준
16	페이퍼 로드	진순신
17	이야기 중국문학사 2권	지세화
18	발칙한 한국학	스콧 버거슨
19	호랑이 나라	데이비드 리치
20	이병주의 동서양 고전탐사 2권	이병주
21	김춘수 사색사회집	김춘수
22	한강 10권	조정래
23	대제국 고구려 6권	유현중
24	명장 명참모	도문 후유지
25	인연	피천득
26	항우와 유방 3권	시바 료타로
27	기습 4권	가이온지 초고로
28	프리다칼로와 디에고리베라	르클레지오
29	풍운의 성채 2권	시바 료타로
30	일본인은 사위를 하지 않는다	이동훈
31	일본은 없다	전여옥
32	김석철의 20세기 건축산책	김석철
33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데	다치바나 다카시
34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선비	정옥자
35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한 나날들	안나 도스토예프스카야
36	위대한 영화	로저 에버트
37	시는 붉고 그림은 푸르네 2권	황위평
38	책은 나뭇잎의 운명을 지닌다	표정훈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39	세계를 움직인 그림들	K.라이홀트 B.그라프
40	셰익스피어 평전	파크 호년
41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2권	신경림
42	공자거어	이인수 편역
43	이백, 두보를 만나다	다카시마 도시오
44	산문	현진
45	7가지 역사적 대결	루돌프 엔트너
46	피카소와 함께한 시간들	조르주 타바로
47	새로쓰는 연개소문전	김용만
48	오사카상인들	홍하상
49	김원일의 피카소	김원일
50	세키가하라전투 5권	시바 료타로
51	칸트 평전	만프레트 가이어
52	나는 어느 호수의 여족인가	황금찬
53	중국고전명언사전	모로하시 데쓰지
54	다빈치코드 2권	댄 브라운
55	검재의 한양진경	최완수
56	왕의 정부	엘리노어 하먼
57	한국문학권력의 계보	문학과 비평 연구회
58	내멋대로 출판사 랜덤하우스	베네트 서프
59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스티븐 킨
60	역사속의 영웅들	윌 듀런트
61	예술혼을 사르다 간 사람들	이석우
62	모마 하이라이트	MOMA
63	책문	김태완
64	나를 매혹시킨 화가들	박서림
65	한국문학의 사생활	김화영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66	올빼미의 성 2권	시바 료타로
67	흑산도 하늘길	한승원
68	대화	리영희
69	막말의 암살자들	시바 료타로
70	추악한 중국인	보양
71	일본 최고의 가게는 다르다	히라마쓰 요이치
72	김혁의 프랑스 와인명가를 찾아서	김혁
73	서한정의 와인가이드	서한정
74	책한권들고 파리를 가다	린다
75	Fine French Wines	James Turnbull
76	30분에 읽는 도스토예프스키	로즈 밀러
77	21세기 유럽현대미술관 기행	이은화
78	세기의 우정과 경쟁	잭 플럼
79	한손에 잡히는 와인	겐시 히로카네

## 경제 · 경영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1	슈퍼스타 경제학	오마에 겐이치
2	알기쉬운 경제원리와 올바른 경제정책	최광
3	21세기 미래경영	유승민 외
4	Digital Economy	美 상무성
5	기업수술	앨버트 더랩 · 밥 안델만
6	생각의 속도	빌 게이츠
7	일본경제 위기보고서	마이클 포터 외
8	경제대통령 그린스핀	스티븐 베크너
9	노키아는 왜 세계제일인가	다케스에 다카히로
10	변화하는 미국경제, 새로운 게임의 룰	마리나 휘트먼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11	The Return of Depression Economics	Paul Krugman
12	영욕의 한국경제	김흥기 편
13	스타벅스	하워드 솔츠 · 도리 존스
14	성공은 소니정신에서 시작됐다	조지마 아키히코
15	루거스녀의 IBM살리기	로버트 슬레이터
16	강경식의 환란일기	강경식
17	책월치와 G면식	로버트 슬레이터
18	소니자서전	소니홍보센터
19	월가의 황제 블룸버그 스토리	마이클 블룸버그
20	대통령의 경제학	허버트 슈타인
21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모리시마 미치오
22	빅딜게임	이명렬
23	마스시다는 하루에 100번 변했다	마스시다 마사노리
24	위대한 이인자들	데이빗 하넨 · 워렌 베니스
25	국가의 종말	오마에 겐이치
26	GE캐피탈	함형기
27	미국의 경제지배자들	히로세 다카시
28	골드만 삭스	리사 엔들리크
29	이제는 수익경영이다	로버트 크로스
30	지식의 지배	레스터 썬로우
31	다시 일어난 일본-그힘은 어디서	연합통신
32	직접 팔아라	마이클 델
33	경제사여행	케네스 젤브레이스
34	기업을 위한 변명	송병락
35	나는 사람에게 투자한다	마키노 오
36	Commanding Heights	D.예르긴 · J.스타니슬로우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37	우리는 기적이라 말하지 않는다	서두칠 외
38	이사람들 정말 큰일내겠군	정규재 · 김성택
39	카리스마 vs 카리스마	홍화상
40	위대한 영웅 잭웰치	자넷 로위
41	한국경제 발전전략	강봉균
42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한국개발연구원
43	경제살리기 나라살리기	진념
44	우울한 경제학자의 유쾌한 에세이	폴 크루그먼
45	삼성전자 왜 강한가	한국경제신문사
46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2권	토머스 프리드먼
47	세계화와 그 불만	조지프 스타글리츠
48	대우 자살인가 타살인가	한국경제신문사
49	기적을 만든 카를로스곤의 파워리더십	이타가키 에켄
50	DJ정부의 경제실세 25인	박종인
51	열보다 더 큰 아홉	정갑영
52	21세기 지식경영	피터 드러커
53	350만의 드라마	이계식 외
54	삼성 공화국	주치호
55	최고경영자 예수	로리베스 존스
56	부즈앨런 & 해밀턴 한국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57	맥킨지 보고서	매일경제신문사
58	외환위기 5년, 한국경제 어떻게 변했나	삼성경제연구소
59	7인의 베스트 CEO	제프리 크레이스
60	부유한 노예	로버트 라이시
61	벌거벗은 경제학	찰스 월런
62	살아있는 신화 스티브 발머	프레드릭 맥스웰
63	나무뒤에 숨은 사람	정갑영
64	한국경제 이렇게 바꾸자	LG경제연구원
65	그림스핀 따라잡기	로버트 스타인
66	TOYOTA, 무한성장의 비밀	히라사토시
67	세계사를 지배한 경제학자 이야기	우에노 이타루

번호	저 서 명	저 자 명
68	이건희 개혁 10년	김성홍 · 우인호
69	명품 마케팅	김대영
70	결단	토요다 에이지
71	왕도는 없고 정도만 있다	전광우
72	한국의 외국인 CEO	송익달
73	Jack	Jack welch
74	록펠러가의 사람들	피터콜리어 · 데이빗호로 워츠
75	The Goal	엘리골드렛 · 제프 콕스
76	버블의 기원	로저 로웬스타인
77	싸우고 지는 사람 싸우지않고 이기는 사람	송병락
78	부활하는 일본경제, 이렇게 달라졌다	다나카 나오키
79	세계자동차전쟁	마에마 다카노리
80	일본의 10년 불황을 이겨낸 힘 도요타	김태진 외
81	한국을 버려라	이성용
82	기업가 정신과 국가 경쟁력	노부호
83	경제학의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	윌리엄브레이크 · 배리 허쉬
84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신장섭 · 장하준
85	개혁의 뒷	장하준
86	박태준	이대환
87	미래는 만드는 것이다	정세영
88	월스트리트 제대로 알기	머니투데이
89	2010 대한민국 트렌드	LG 경제연구원
90	도요타시 1번지	요미우리 신문
91	과짜 경제학	스티븐 레빗 · 스티븐 더브너
92	2015년 이재용의 삼성	성화용
93	In an Uncertain World	Robert Rubin
94	ICON 스티브잡스	제프리 영 · 윌리엄 사이먼
95	세계화 이후의 부의 지배	레스터 서로우
96	왜도난마 한국경제	이종태
97	피터 드러커 자서전	피터 드러커
98	한국문화의 사생활	김화영

## 매사에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충청심의관실 과장 강태욱〉

충청심의관실의 젊은 오빠 강태욱 과장님을 칭찬합니다.

먼저 칭찬릴레이 코너에서 제 이름을 보고 놀라웠으며, 많은 분들 중에서 저에 대해 칭찬을 해주신 정은영 사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칭찬받을 만큼 그런 모습을 보였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고,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근무하면서 같이 근무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막상 칭찬을 받고나니 칭찬릴레이 만큼 또 어느 분을 칭찬을 해드려야 하는데 좋은 분들이 많지만 우선 충청심의관실에서 근무하시는 강태욱 과장님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총괄에서 국회과장님으로 계실 때나 현재 기획총괄과장님으로 과장님을 뵈 때마다 항상 느끼는 점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과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시는 부분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한결 같으신 강태욱 과장님 총괄에 오래 근무하셔서 그러신지 다행이 “강총괄”로 불리신답니다... 총괄의 마스코트가 되어주시는 과장님!!!

요즘 더 과장님의 모습을 뵈면 더 젊어지신 것 같고 마라톤 등으로 젊게 사시는

**과장님~ 파이팅!!!**

〈충청심의관실 실무관 반송희〉 새미래





# 재미있고 성과(?)있는 혁신 퍼즐

안녕하세요~ 깊어가는 가을 낙엽의 짙은 그림자가 스산한 겨울바람에 몸을 실어 훑날리는 풍경이 그리 낯설지만은 않은 요즘입니다.  
주변에 혼자인 분들이 계시거든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함께 한다면 자그만 마음이나마 포근한 날들로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퍼즐의 컨셉은... '쉬어가기'입니다. 지난 혁신퍼즐들이 너무 어렵대(?)고 하소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혁신퍼즐은 좀더 쉽게,  
쉬어갈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느끼실 분들도 있을텐데 걱정입니다. @@)  
이제 달력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니다. 그만큼 지나 온 한 해를 보람있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자혜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다음 혁신퍼즐 때는 그간 해온 혁신퍼즐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구성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혁신퍼즐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보람있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o^

## <혁신마당>

1, 11			12		2, 13		13
			3				
4		15					
		5			6	16	
	17						
7		18			8		19
						9	
10							

## 【가로열쇠】

1. 우리 국무조정실 미션은 '품질높은 0000, 조화로운 국정선도'입니다.
2. 내 이름은 김삼순에서 열연한 여배우인데요, 그름 샤크라의 멤버출신이기도 합니다.
3. 자기 한 몸을 보전하는 책략
4.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에 가면 어렸을 적의 동심의 세계를 달리는 말 타는 기구가 있지요? 그 주변을 뱅뱅도는 그 놀이기구가 그땐 왜 그리 좋았었는지.
5. 기독교는 교회 불교는 절.. 그럼 천주교는?
6. 사회문화조정관실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중 하나로서, 057 총리님 지시로 총리실 4급이상 공무원이 실제 현장을 방문, 액션러닝 학습을 통해 '취약계층 사회 000 구축방안'을 마련, 추진중에 있다고 하네여. ^^
7. 국무조정실 정부혁신평가 종합실적 보고서가 각 심의관실에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실 혁신실적 평가이니까 한 번쯤 정독을 부탁드리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동 자료 3페이지 맨 아래서 3 번째 줄의 '회의시' 바로 밑에

있는 4글자입니다. ^o^

8. 정부여당, 행정부, 청와대가 함께 모여서 하는 회의체 이름 '000' 수뇌부 회동
9. 백제의 국도 사비성을 중심거점으로 한 산성의 이름으로서 부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0산성
10. 중국 춘추시대 말기의 오나라 왕 부처와 관련된 사자성어입니다. 복수를 위해서 쓸개도 하고, 가시뿔몸에서 자고..

## 【세로열쇠】

11. 금번 1120~21에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APEC '0000'에는 미국 일본 EU 등 22개국 주요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입니다.
12. 타 부처 홈페이지에 대한 관심차원의 문제입니다. 노동부 홈페이지 배너 왼쪽에서 5번째에 보면 '00공개00'이라고 있네요~. 각종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서 한번에 볼 수 있도록 모아두었다는 의미로 '0000'이라고 합니다
13. BH에는 일일현안점검회의가, 우리 국무조정실에는 정책상황실이 주관하는 '0000' 조정회의가 있습니다
14.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00' 똥땀이 할매 족발~. 00 원할머니 보쌈~..아 먹고싶당~
15. 태양계 내의 행성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00,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근데 다른 행성은 다 '별' 성'자를 쓰는데 유난히 지구만..? '지성'~ 그러면 이상하니까~ ♪.. 골대근. ㅋㅋ
16. 대한민국 0000 홈페이지는 www.egov.go.kr입니다.
17. 바다의 산~. 신라시대 장보고의 일생을 주제로 작년에 KBS에서 최수종이 열연하기도 했습니다.
18. 로버트 차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 중에 나오는 법칙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혁신퍼즐 9번 정답이기도 한데요, 조직이 영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한데, 혁신의 시작은 '000'이라고 합니다
19. www.youth.go.kr(000위원회)는 '000'의 육성, 활동, 복지, 보호 등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직속 합의회 행정기관으로서 기존의 청보위 조직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 정답을 맞추어 국무조정실 주니어보드에게 주시면, 추첨을 통해 1명을 선발하여 심판위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립니다 새미래

주니어보드

새미래  
New Future

등록일 : 2005년 3월 2일

발행일 : 2005년 11월 21일 통권8호  
(월간 비매품)

발행인겸 편집인 : 새미래(주니어보드)  
이창수(팀장), 김진곤, 김세용, 권용식,  
신영진, 권혜린, 진정용, 유정미, 이순아,  
육현수, 진선미

발행소 :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중앙청사 국무조정실



## 편집후기

어느덧 마지막 호만을 남겨 두고 새미래 8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그동안 혁신이란 하늘아래 정신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느낀 세월은 참으로 빠르게 흘렀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기보다는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는 멋진 자세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 마지막 호에는 지난 1년간의 주니어보드 활동 및  
국무조정실 혁신성과 등의 내용으로 『특집호』로 발간합니다.

그리고 11월말에는 1%나눔운동으로 도움을 받은 어린이와 다시 한번 만남의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국회일정등으로 바쁘셨던 와중에도 새미래 모임까지 함께하느라 모두 애쓰셨습니다.  
특히 새미래 모임일정잡는 데 늘 수고해주시는 진선미씨께 특히 감사할... ^^

자... 이제 저희는 마지막까지 혁신의 하늘아래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고 웅크리시지만 마시고 가슴을 짹 피고 힘차게 같이 달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

본격적인 정기국회 준비로 업무가 너무 바빠 충실한 소식지를 만들지 못해 죄송합니다. **새미래**